

정신공간에서의 개념적 사상의 양상

이 종 열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Aspects on Conceptual Mappings in Mental Space

Jong-Yeal Lee,
Dept of Korean-Linguist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이 글은 최근 인지언어학에서 기본적인 핵심 이론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정신공간 이론'(mental space theory)에 대한 이론적인 소개와 함께 의미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 '사상'(mappings)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994년 이후 Fauconnier와 Fauconnier & Turner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정신공간 이론에서는, 언어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인지적 공간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언어로 '투사'(projection)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기존의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의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사상, 이른바 '두영역 모델'의 대안으로 '다공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공간 모델 속에는 '포괄공간'(generic space)과 '혼합공간'(blending space)이 설정되는데, 그 중에서 포괄공간은 근원공간과 목표공간의 모든 개념이나 추상적인 도식 등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혼합공간은 실제의 다양한 개념적 혼합의 결과로 나타나며, 입력된 공간에서 나타나는 상응되는 부분들 사이의 연결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다른 혼합공간의 입력공간이 되어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 내는 동적인 기능을 가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개념적 사상의 양상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의미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합성어와 같은 어휘적 측면은 물론, 일상의 문장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개념적 사상의 다양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들머리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사고력과 상상력, 그리고 유추와 같은 인지적 능력을 사용한다. 실제 언어로 표현되는 많은 의미들은 개념적이며 사고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지언어학자들의 연구는 의미의 개념구조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지언어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이론이 제기되었는데, Fauconnier(1994)에 의해 체계화되기 시작한 이른바 '정신공간 이론'(Mental Space Theory)이라고 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인지언어학의 기본적인 핵심 이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Fillmore(1982)에 의해 전개되어 온 '틀의미

론'(Frame Semantics)이며, 둘째는 Lakoff & Johnson(1980, 1987)에 의해 정립된 '은유와 환유의 이론'(Metaphors & Metonymy) 마지막으로 Langacker(1987)에 의해 전개된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론적인 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미의 개념구조에 대한 탐색으로 귀결된다. 이 글은 이같은 맥락에 따라 국내에서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정신공간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의 성격을 띠는 동시에 그러한 이론적인 틀 속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개념적 사상의 양상과 중요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정신공간의 이론적 기초

2.1. 정신공간의 개념

인지적 관점에서, 언어의 구조는 고도로 추상적인 인지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다만, 언어는 그러한 인지구조를 이루고 있는 인지적 구성체(cognitive construction)들의 표면적인 명시체로 간주되며,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체들 간의 상호 관계적인 작용에 대한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Fauconnier(1997: 36)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지적 구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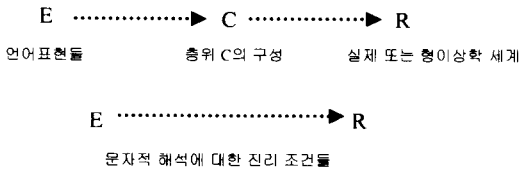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의 사용과 해석은 문자적 해석에 따른 직접적인 진리 조건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총위(C)를 통해 언어 표현(E)이 실제 세계(R)와 연결되어 나타나므로, 이러한 인지적 총위에서 일어나는 인지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지적 총위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공간(mental space)¹⁾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정신공간은 실제 언어로 표현되는 담화가 세계를 추론하고 그 속에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기질(cognitive substrate)을 제공하도록 설정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Fauconnier(1994: 16)은 이같은 인지적

총위의 설정을 통해 정신공간 개념을 “언어적 구조와는 다르지만 언어적 표현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 어떤 담화 상황에서 형성되는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그림 1의 인지적 총위(C)는 언어의 사용에 따라 가변적이며, 정신공간의 연결은 그러한 실제 언어 사용, 즉 담화가 진행 중에 형성되는 공간이다.

결국 ‘정신공간’(Mental Space)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존에 높은 일반성의 차원에서 일컬어져 왔던 ‘개념적 영역’(Conceptual Domain)이라는 용어와 대조적으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언제든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서 때로는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수정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는 공간이다.

2.2. 두영역 모델과 다공간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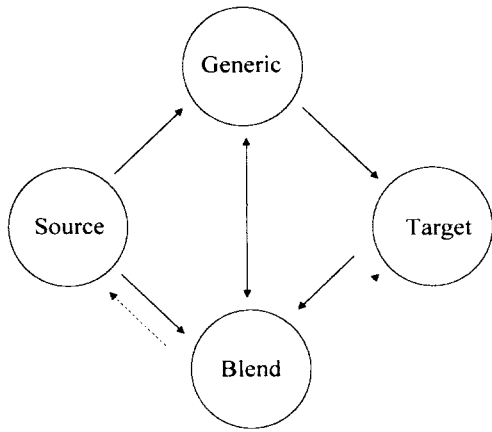
일찍이 Lakoff & Johnson(1980)은 개념적 은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근원영역’(source domain)과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고 하는 개념적 영역을 설정하고, 이 두 영역 사이의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인지사상(cognitive mapping)을 통해 개념화의 방식을 논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은 공통의 경험에 기초로 하여 형성된 높은 일반성과 관습성의 차원으로서 우리의 지식에 대한 많은 기본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여행이다.’라는 표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행’에 대한 우리의 공통적인 지식과 경험구조를 통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이해한다.

그러나 Fauconnier & Turner(1994)는 이러한 ‘두영역 모델’(two-domains model)은 더 크고 일반적인 개념적 투사 모델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그 두 영역 사이에 ‘중간공간’(middle space)를 설정하고 여기에는 ‘포괄공간’(generic space)과 ‘혼합공간’(blended space)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개념구조에 대한 보다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두영역 모델’(two-domains model)에 대한 경쟁적 대안으로 ‘다공간 모델’(many-space model)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mental space’에 대해 ‘정신적 공간’ 혹은 ‘정신공간’이라고 하는 술어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space’라고 하는 용어는 이전의 ‘frame’ 혹은 ‘domain’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지만, 이같은 용어보다는 ‘space’가 담화상의 개념구조까지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다공간 모델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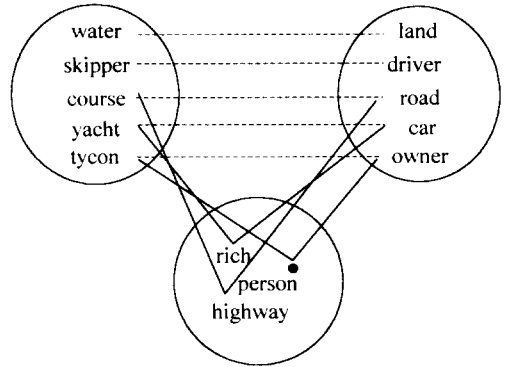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중간공간의 하나인 포괄공간은 근원공간과 목표공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공간으로서 두 공간에 공통적이면서 추상적인 도식이나 틀, 역할 등이 반영된 공간이다. 한편, 혼합공간은 그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중간이며 그리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혼합공간은 각각의 공간으로부터 그 특성을 물려받은 공간이기도 하며, 동시에 다시 새로운 구조(emergent structure)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공간으로서 개념적으로도 상당히 풍부한 공간이며 의미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2.3. 혼합공간의 역할

주지하다시피 혼합공간은 각각의 입력구조로부터 부분적인 구조를 물려받아 만들어 낸 새로운 구조의 정신적 중간공간이다. 개념적 혼합은 용어적으로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고 무한한 의미 실현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지적 현상에 있어서 범주화, 유추, 창조적 행위, 가설 설정, 추론, 문법, 수학적 개념 등과 같은 많은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구현정 1995: 89 참조)

아래에서는 어휘와 문장의 층위에서 개념적 혼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언어표현을 통해 혼합공간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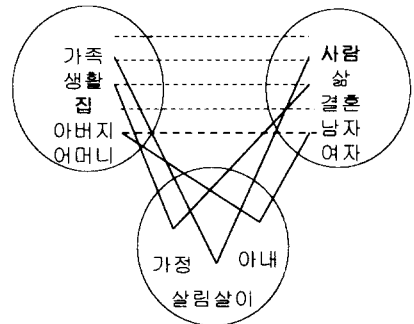
먼저, 합성어의 의미 생성과 해석과 관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Fauconnier(1994)는 'land yacht'의 혼합공간을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하고 유추적 사상을 통해 개념적 혼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며, 서로 다른 인지영역에서 나온 형식들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혼합되는지를 설명한 바 있다.



「그림 3」 'land yacht'의 혼합공간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공간에서는 두 입력공간 'land'와 'yacht'로부터 부분적인 개념을 물려받아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게 되어 '부자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는 호화스러운 고급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국어의 '집사람'이라고 하는 합성어의 의미도 '집'과 '사람'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개념 영역으로부터 유추적 사상을 통해 '자기의 아내'를 의미하게 된다. '집사람'의 혼합공간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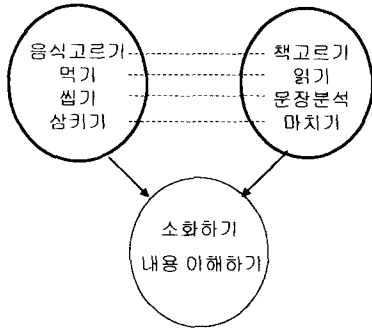


「그림 4」 '집사람'의 혼합공간

다음으로 문장 층위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혼합의 양상을 살펴보자.

(1) 나는 그 책을 소화했다.

위의 (1)의 예문에서 ‘음식물’과 ‘책’은 서로 다른 개념적 영역에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 사이의 교차적인 사상을 통해 서로 상응되는 요소를 볼 수 있다. 즉 ‘음식물을 먹는 과정’과 ‘책을 읽는 과정’에 대한 각각의 개념들이 혼합공간 속에서 개념적인 통합을 이루게 된다.



「그림 5」 ‘먹기’와 ‘읽기’의 개념적 혼합

이처럼 어휘와 문장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혼합의 결과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 표현들이 가능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새로운 문장 표현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 (2) a. 문장의 뜻을 곱씹어라.
- b. 편식하듯이 책을 고르지 마라.

이러한 개념 혼합의 과정을 통해 풍부하게 나타나는 혼합공간의 양상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근원 공간	혼합공간	목표 공간
음식물 고르기 먹기 삼키기 소화하기	음식물을 고르는 것은 책을 고르는 것. 음식물은 씹기도 하고 삼키기도 한다. 음식물을 씹는 것은 문맥을 이해하는 것. 음식물을 삼키는 것은 먹는 과정의 끝. 먹는 과정의 끝은 책읽기를 끝내는 것. 소화되는 과정에서 영양분은 체내에 흡수됨. 흡수되는 과정은 책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	책고르기 읽기 읽기를 끝냄 전체 내용 이해하기

「표 1」 ‘먹기’와 ‘읽기’의 개념적 혼합 과정

이상과 같이 어휘와 문장의 층위에서 개념 혼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을 파악해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집사람’과 같이 언어 표현이 관습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일수록 혼합공간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덜 관습적이고 새로운 표현일수록 혼합공간의 역할은 그만큼 커진다고 하는 사실이다.²⁾

요컨대, 정신공간에서 혼합공간의 역할은 의미를 생성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포함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혼합공간의 특징은 다음의 같이 규정될 수 있다.(구현정 1995: 90-1 참조)

첫째, 입력된 공간에 나타나는 상응되는 부분들 사이의 연결을 활용하고 발전시킨다.

둘째, 입력공간으로부터 투사가 일어날 때 투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셋째, 하나의 혼합공간을 만드는 입력공간은 많을 수도 있다.

넷째, 혼합공간에서 생겨난 추론이나 증명, 생각이나 감정 등은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입력내용이나 관련된 상황 또는 개념적 영역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혼합공간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이므로 이 자체가 또다른 혼합공간의 입력공간이 되어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 내는 기능도 가진다.

3. 개념적 사상의 양상

정신공간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가 가지는 의미를 정신공간 속에서 그것이 지시하는 개념 요소 사이의 연결 혹은 사상관계(Mapping)에 의해

2) 구현정(1995: 110)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이전의 두영역 모델이 다공간 모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모형이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Lakoff & Johnson(1980)이 언급했듯이, 개념적 은유는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동시에 언어 속에 널리 퍼진 관습적인 표현에서 발견되므로 이러한 작용은 거의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인지과정은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혼합공간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개념적 사상 관계는 의미구성에서 있어서 중요하고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신공간 이론에서는 의미의 생성과 해석의 원천이 되는 혼합공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혼합공간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간과 공간 사이의 상호교섭 관계, 즉 공간사이에서 일어나는 개념적 사상의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3.1. 투사적 사상

'투사적 사상'(Projection Mappings)은 한 영역의 구조부를 다른 영역의 구조부로 투사하는 사상의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상은 특히 우리가 몇몇 목표영역을 말하고 생각하기 위해 다른 영역, 즉 근원영역의 구조를 사용하고, 그 영역에 부합되는 어휘를 사용하는 데에서 확인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투사적 사상의 현저한 예로, 시간 표현, 논증 과정 및 인간의 추상적인 감정과 관련된 표현을 통해 투사적 사상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다. 시간은 범언어적으로 공간영역을 통해 이해되는데, 즉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동과 공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이끌어 낸다.

(3) 'TIME AS SPACE'

- a.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 b. 여름이 막바지에 있다.

Lakoff & Turner(1989: 51)는 이러한 투사적 사상을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s)라고 했는데,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개념적인 투사는 거의 무의식적이며, 그 작용은 인지적으로 거의 자동적이라고 특징 지은 바 있다.

둘째, 시간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논증의 과정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이 같은 투사적 사상의 양상이 잘 드러난다

- (4) a. 새로운 이론으로 **이끌었다**.
- b. 그들은 결국 다른 결론에 **다다랐다**.
- c. 다른 당신과 다른 입장에 **서있다**.
- d. 그의 설명은 나와 다른 **선상에 있다**.

위의 예와 같이 논증의 과정에 대한 개념화 방식은 공간이나 이동에 대한 개념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³⁾.

이처럼 문맥을 통해 투사된 사상은 인간의 추론이나 담화구조의 일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추론이 구체적인 영역에서 추상적인 영역으로 어떻게 전이되며, 그 전이가 어떻게 허용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감정 표현에 대한 예를 살펴보자.

- (5) a. 그녀를 본 순간, 내 마음에도 사랑이 **썩트기** 시작했다.
- b. 사랑이 **익어** 가고 있다.
- c. 드디어, 그들의 사랑이 **열매**를 맺었다.

(5)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물의 성장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에 대해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상이 되어 있다.

요컨대, 투사적 사상은 상응되는 실제 사이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사상으로 언증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추론되며,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이기 때문에 문화적 특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3.2. 화용적 기능 사상

'화용적 기능 사상'(Pragmatic Function Mappings)은 장소와 관련된 두 가지 영역이 그 장소와 관련된 사물의 범주와 상응될 때, 화용적 기능에 의해서 각기 다른 대상에 사상되는 양상이다.

- (6) a. 선반에 김동인이 있다.
- b. 12호실 위궤양은 커피를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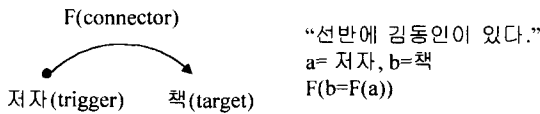
3) 이러한 개념화 양상은 영어 표현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a. This **leads to** a new theorem.
- b. They **reached** a different conclusion.
- c. This proof **stands in the way** of your conjecture.
- d. Try to think **straight**.
- e. This **line** of reasoning is tak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6)의 예와 같이 일반적으로 책의 저자는 그가 쓴 작품이나 저서와 일치되고, 병원의 환자는 그가 앓고 있는 질병과 일치된다. 따라서 '환유'(metonymy)는 이러한 화용적 기능 사상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화용적 기능 사상이 가능하게 되는 원리를 정신공간 이론에서는 '접근성의 원리'(access principle: AP) 혹은 '동일성 원리'(identification) principle: IP)로 설명하고 있다.

이 원리는 한 정신공간의 요소를 명명하거나 서술하는 표현이 다른 공간의 요소와 대응요소로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명명하거나 서술된 요소를 '유인자'(trigger), 그리고 동일시된 요소를 '목표'(target)이라 하고, 이들은 화용적 기능의 '연결자'(connector)에 의해 연결된다.



「그림 6」 접근성의 원리

요컨대, 화용적 기능을 통한 사상은 우리 지식의 기본 구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 영역의 요소를 다른 영역 내의 상응되는 부분을 통해 일치시켜 주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그것과 상응되는 부분에 의해 일치되는 실제물을 허용해 주기도 한다.

3.3. 도식적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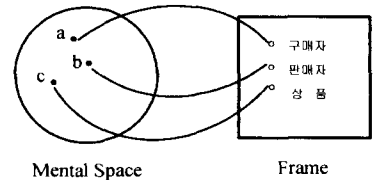
'도식적 사상'(Schema Mappings)은 일반적 '도식'(schema), '틀'(frame)모형이 문맥의 특정한 상황 구조에 사용될 때 작용하는 사상이다. 이에 관련하여 Langacker(1987, 1991)는 "인지문법 틀 속에서 문법적 구성과 어휘항목은 의미도식을 환기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Lakoff(1987)도 "정신공간이 '이상화된 인지모형'(ICMs)에 의해서 구조화되며, 이는 도식적 사상에 대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Fillmore(1982, 1985)의 ICM이 틀인 경우 대표적인 한 유형인 '사고팔기'에 대한 틀에서 그 틀 속

에는 '구매자, 판매자, 상품, 유통, 가격, 소유권, 교환' 등과 같은 일종의 추론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7) 철수가 영희로부터 금을 샀다.

위의 (7)예문에서와 같이 표현된 정신공간 속에는 철수, 영희, 금의 요소가 있고, 이와 일치하는 요소를 각각 a, b, c라 가정한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사고팔기' 틀 속의 적절한 슬롯을 통해 사상됨을 다음의 「그림 7」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7」 도식적 사상

결국 틀은 정신공간의 배경화된 지식으로 제공되며, 공간과 틀 사이의 사상은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사상된 공간의 구성과 역할의 모습을 반영해 준다.

4. 마무리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정신공간 이론의 특징과 인지적 사상의 양상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한다.

첫째, 정신공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 언제 든지 형성되는 개념구조이다.

둘째, 정신공간은 언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하나의 인지적인 절차이며, 그러한 절차는 일상의 담화를 토대로 형성된다.

셋째, 정신공간의 기본적인 모델은 다공간 모델로서 기존의 두 공간 모델과는 달리 많은 의미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혼합공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두영역 모델은 다공간 모델의 특별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정신공간에서 사상은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사상의 유형에는 투사적 사상, 화용적 기능 사상, 도식적 사상으로 구별된다.

인지언어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언어의 의미와 구조가 대부분 우리들의 경험과 밀접한 동기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며, 은유와 환유의 그 중요한 원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공간에서는 더 이상 은유와 환유라는 개념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정신공간에서의 상호 관련성을 '사상'(寫像, mappings)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하려 한다. 그리하여 인지적 사상은 유추, 추론, 상상력 등과 같은 다른 인지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원리로 간주한다.

요컨대, 정신공간 이론은 언어의 의미에 대한 사고의존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는 이론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구현정(1996). "은유 해석에 있어서의 혼합공간의 역할", 『자하어문논집』 11, 상명대.
- 김종도(1997). "인지 문법의 국어에의 적용",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 김진우(1999). 「인지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종열(1999b). "정신공간을 통한 합성어의 인지적 의미 해석", 『언어과학연구』 16, 언어과학회.
- 이종열(2000a). "정신공간에서의 시제 인식", 한국어 의미학회 발표요지.
- 이종열(2000b). "어휘 및 문법 현상에 대한 정신공간 이론의 설명력", 문학과 언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Fauconnier, G.(1994). *Mental Spa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uconnier, G. & Turner, M.(1994). *Conceptual projection and middle space*. UCSD: Department of Cognitive Science Technical Report 9401.
- Fauconnier, G.(1997). *Mappings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uconnier, G. & Sweetser, E.(1996). *Spaces, Worlds, and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ckendoff, R.(1983). *Semantics and Cogni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Lakoff, G.(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1988). "Cognitive Semantics", In Eco,U., Santambrogio, M. & Violi, P.(1988). *Meaning and Mental Representations*, Indiana University Press.
- Lakoff, G. & Johnson, M.(1980). *Mataphors We Live By*.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Turner, M.(1988).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 Stanford, California: Stand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W.(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de Gruyter.
- Saeed, J.I.(1997). *Cognitive Semantics*, Oxford : Blackwell.
- Sweetser, E.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eal Aspects of Semantics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M. & Fauconnier, G.(1994). Conceptual Integration and Formal Expression, *Journal of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이종열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02-701
전화번호: 053-620-1310
전자우편: jylee@taegu-e.ac.kr
ljy418@chollian.net